



백삼위 한인성당

2701 W.237th St. Torrance, CA 90505
 www.103skcc.org 103skccusa@gmail.com

담임신부 626-215-7224
 전교수녀 213-804-9151
 평협회장 310-408-1443
 연령회장 310-749-8942
 사무실 310-326-4350

주일미사	주일전날저녁	오후 7시	평일미사	월,화	미사없음
	아침미사	오전 7시 30분		수	오후 7시 30분
	가족미사	오전 9시 30분		목,금	오전 9시 30분
	교중미사	오전 11시		첫 토요일	오전 9시 30분
고해성사	평일 · 토요일 미사 30분 전				

사무실 업무시간	
월,화,토	휴무
수,목,금	8:30am - 12:30pm
주일	8:30am - 12:30pm

(다해) 부활 제5주일

입당 : 129 파견 : 130

성 반

화답송 Responsorial Psalm

◎ **저의 임금이신 하느님,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.** (시편 145, 8-9, 10-11, 12-13)

-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,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.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,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. ◎
- 주님,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,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.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,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. ◎
-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,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.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,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. ◎

◎ **I will praise your name for ever, my king and my God.** (Psalm 145:8-9, 10-11, 12-13)

- The LORD is gracious and merciful, slow to anger and of great kindness. The LORD is good to all and compassionate toward all his works. ◎
- Let all your works give you thanks, O LORD, and let your faithful ones bless you. Let them discourse of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speak of your might. ◎
- Let them make known your might to the children of Adam, and the glorious splendor of your kingdom. Your kingdom is a kingdom for all ages, and your dominion endures through all generations. ◎

이른 아침이었다. 나는 산마루까지 올라가서 뒤를 돌아 보았다. 저 아래에는 호수가 보이고, 사방에는 큰 산들이 새벽빛에 고요히 서 있었다. 모든 것이 그토록 맑았다. 하늘은 높고 그 아래 잘생긴 가지를 뺏은 나무들은 싱싱하였다. 그리고 나 자신도 맑은 기쁨이 마음에 솟구쳐, 눈에 안 보이는 소리없는 샘이 솟아올라 모든 것이 빛과 공간으로 떠오르지 않는가 하였다.

그때 나는 한 인간의 마음이 정말 넘쳐흐르게 되면 그 자리에 서서 무한한 선이시며 빛의 아버지이시고 사랑 그것이신 하느님을 우러러보면서 두 팔을 그릇처럼 펴 들고 거기 고요와 빛에 잠긴 세상 만물을 모두 담아 바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. 그럴 때면 두 손이 이루는 그릇에서 모든 것이 조출하고 거룩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듯이 느껴지리라.

그리스도께서도 일찍이 마음의 산머리에 서서 당신 사랑과 한뼘을 끝까지 다하는 제물로 아버지께 바치지 않으셨던가. 그리고 그 산머리의 앞턱은 아브라함이 희생을 바치던 모리아 산이 아니었던가. 그에 앞서 왕들이 사제가 되어 속죄의 희생을 바치던 곳이 아니었던가. 또 그보다도 훨씬 먼 저 태고에는 아벨의 제물이 티없이 곧장 하늘로 타오르던 곳이 아니었던가.

이 산머리는 언제나 높이 솟아 있고 신성한 두 손은 언제나 퍼져 있고 제물은 언제나 하늘로 오르고 있다. 그것은 사제가 - 아무 보잘것없는 일꾼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- 사제로서 제대에 서서 성반에 흰 제병을 얹고 두 손으로 바칠 때마다 그렇다. “거룩하신 성부,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천주여, 주의 부당한 이 종이 무수한 죄와 모독과 또한 여기 둘러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나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천주께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어, 나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되게 하소서.”

▶ **반장 월례 모임**

일시 : 5월 25일(주일), 교종미사 후
장소 : 성전

▶ **요셉회 모임**

일시 : 5월 25일(주일), 교종미사 후
장소 : 강당

▶ **5월 영화관람**

5월 영화관람행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.
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.
일시 : 5월 30일(금), 오후 6시 30분
장소 : 미디어실(강당)
영화 : 두 교황(The Two Pope)
신청마감 : 5월 25일(주일)
문의 : 이태환 이나시오 ☎ 971-325-7517

▶ **백삼위 예술작품 전시회**

본당의 날(6월 8일)을 맞이하여 신자들의 예술작품(서예, 그림 등)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. 작품전시회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특히, 학생들의 작품들도 환영합니다.
신청마감 : 6월 1일(주일)
제출일자 : 6월 7일(토), 오전 10시
제출장소 : 강당
전시기간 : 6월 8일(주일) - 22일(주일)
Reception : 6월 8일(주일) 오후 1시 - 3시, 강당
문의 : 이명렬 라파엘 ☎ 310-749-0278

▶ **45주년 본당의 날 행사**

백삼위 한인성당은 현재 토랜스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. 이러한 여러 변화 속에서 기쁨과 도전, 갈등과 치유를 경험하며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왔습니다.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사제, 수도자, 그리고 신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번 '본당의 날'을 계기로 우리 본당은 진정한 성령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. 특히 6월 8일 성령강림대축일을 '본당의 날'로 새롭게 지정 하여,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
일시 : 6월 8일(성령강림대축일), 오후 12시 - 4시
장소 : 친교장

▶ **2025/2026 교무금 약정캠페인 결과 보고**

현재 전체 가정의 약 2/3인 232가정이 약정서를 내주셨습니다. 교무금 약정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신 신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캠페인은 끝났지만 사무실에서 약정서와 신자등록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.

▶ **25-26학년도 한국학교(매주 토요일수업) 등록 개시**

1) 종업식 : 6월 1일(주일), 오후 3시 30분
2) 개학일 : 8월 23일(토), 오후 2시 - 5시
3) 한국학교 교사모집
문의 : 교장 이유정 마르타 ☎ 310-722-0175
103skccks@gmail.com

▶ **제34차 성령 세미나**

1) 일시 : 6월 20일(금) 오후 5시 - 22일(주일), 오후 3시
2) 장소 :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
3) 참가비 : \$ 300 / 주관 :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
4) 강사 : 김대선 바오로 신부, 배한욱 요한세례자 신부
문의 : 성령기도회장 이인석 비오 ☎ 213-258-8665

우리들의 정성

교 무 금	\$ 4,960.00
주일헌금	\$ 2,686.00
감사헌금	\$ 3,570.00
미사예물	\$ 2,075.00
합 계	\$ 13,291.00

고미용	권태만	김선미	김원호	김은주	김재희	김정순
김정웅	김혜영	문상현	박순자	박인식	박정병	박진숙
송배로카	송슬기	송인선	엄영희	유중수	유철희	이명렬
이일길	이태환	이항우	정동규	최기진	최성은	최재은
유철희	이윤희					